



『성재일기』에 나타난 16세기 재지 사족의 교유 양상*

김종석**

1. 들어가는 말
2. 도학적 동반자로서의 교유
3. 출사 시기의 교유
4. 일상생활 속에서의 교유
5. 맺는 말

요약

본 논문은 성재 금난수(1530~1604)의 『성재일기』를 통해 16세기 재지 사족들의 교유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문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금난수의 교유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황과의 학문적 관계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금난수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입장에서 이황과 조목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의해 규정 지워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7-KFR-1230006).

** 金鍾錫,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의해 스스로 영위해 가는 삶의 모습을 교유라는 관점에서 밝혀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퇴계학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학적 동반자로서의 교유 관계, 지금까지 거의 조명되지 않았던 출사 시기의 교유 관계, 고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상생활 속에서의 교유 관계를 일기를 중심에 놓고 문집 자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주제어

: 금난수, 성재일기, 교유, 출사, 사회관계망, 고산정, 퇴계학파

1. 들어가는 말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불가피하게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교유라고 하는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간다. 어떤 교유는 사람의 삶에 방향과 내용을 부여하고 어떤 교유는 생존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불가피한 과정으로서 교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교유는 사람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교유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조선시대 사족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삶의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집을 통해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개 도학적 교유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이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올바른 자세도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도 예안현의 유학자 금난수琴蘭秀(惺齋, 1530~1604)가 쓴 『성재일기惺齋日記』를 분석함으로써 16세기 사족들의 교유 양상을 객관

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성재일기』는 금난수가 25세인 1554년부터 사망한 1604년까지 50년간 기록한 일기로서 비록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많지만 그의 일상적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¹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금난수는 조목趙穆(月川, 1524~1606)과 이황李滉(退溪, 1501~1570)의 충실한 제자였으며 그의 삶은 두 사람의 절대적 영향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이황을 중심으로 퇴계학파의 일원으로서 금난수를 이해할 때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조선시대 사족들의 교유 양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와 별개로 중요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은 교유를 통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성취했는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금난수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즉 금난수가 이황과 조목이라는 절대적 존재에 의해 규정 지워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해 스스로 영위해 가는 삶의 모습에 주목해 보자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교유 행위가 갖는 실존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 바탕에는 도학에 대한 열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입신과 출세를 향한 의지도 있었으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을 것이다. 이점에서 조선시대 사족들의 생활상과 관련하여 금난수 연구의 의의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의 ‘평범함’에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² 이 말은 금난수 연구를 통해서 조선시대 사족들의 일반적

1 금난수는 대략 25세부터 75세로 사망할 때까지 50여 년 동안 일기를 썼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惺齋日記』는 25세인 1554년 10월 30일부터 27세인 명종 1556년 12월 17일까지, 31세인 1560년 11월 9일부터 32세인 1561년 9월 9일까지, 46세인 1575년 5월 13일부터 75세로 사망한 1604년 2월 13일까지의 기록이다. 발문에 의하면 없어진 부분은 입신, 정유 양란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33세부터 45세까지 한창때의 기록이 누락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본래 필사본 형태로 문중에 보관되어 오다가 2019년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국역 발간되었다.

모습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일기에 나타난 금난수의 모습은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코 짧지 않는 관직생활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자식의 과거공부와 시험을 세세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할 것이다.

이 글은 금난수의 세속적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유학자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학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자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유학자에게 있어서 도학적 교유가 갖는 의미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한 인간으로서 실제적 교유 양상을 그려냄으로써 조선시대 재지 사족사회를 움직였던 관계 메커니즘을 파악해 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문집 자료만으로는 올바른 파악이 어렵고 일기에 나타난 교유 양상과 그 내용을 채워줄 수 있는 문집 자료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객관적 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2. 도학적 동반자로서의 교유

연보에 의하면 금난수는 7세 때 조부 첨지공에게 『소학』을 배웠으나 남의 문하에서 공부를 한 것은 12세 때 김진³의 문하에서 수학한 것이 시초였다. 당시 김진은 고을 수재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는 다섯

2 박현순, 「성재 금난수의 수학과 교유」, 『역사문화논총』 4(역사문화연구소, 2008), 37쪽.

3 金璣(1500~1580), 자는 鏞仲, 호는 靑溪, 본관은 義城이며 안동에 거주하는 청계공파의 파조.

이들을 모두 과거에 급제시켜 ‘오자등과택五子登科宅’으로 불릴 만큼 자식 교육에 열정을 쏟았던 인물로 유명하다.⁴ 이 때 김진의 아들인 극일克(藥峯)·수일守(龜峯) 등과 함께 공부하면서 교제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아들 이자 이황의 고제인 성일誠(鶴峯)과의 교유도 이 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후로는 고을의 유생들과 청량산 같은 곳에 모여 공부했다. 당시의 공부 방식은 특별한 스승 없이 공부에 뜻을 둔 유생들과 함께 사찰이나 서원 등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집단 학습을 하는 식이었고, 주로 어울리던 사람은 구봉령具鳳齡(柏潭)·이국량李國樑(陽谷) 등 동향의 유생들이었다. 20세 무렵까지는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난수가 도학에 뜻을 정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은 횡성조씨 橫城趙氏와 혼인함으로써 조목의 매제가 된 21세 무렵부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조목은 실질적으로 이황 문하에서 좌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목을 통해서 이황의 문하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21세 때라면 서력 1550년으로 아직 계상서당溪上書堂이 이루어지기 전 이황이 한서암寒棲庵에 거처할 때이다. 이황 연보에 “이로부터 배우러 오는 선비가 날로 많아졌다.”⁵고 했던 그 때 금난수도 문하에 입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황 문하에 입문한 이후에도 20대의 금난수의 학문을 실질적으로 지도한 사람은 조목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일기를 보면 27세까지는 압도적으로 조목과의 교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황과의 관계는 의례적으로 찾아뵈거나 시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

4 김진의 다섯 아들 가운데 藥峯 金克一·鶴峯 金誠一·南嶽 金復一은 대과에 급제하고, 龜峯 金守一·雲巖 金明一은 소과에 합격했다.

5 『퇴계선생연보』 권1, 29년 경술(1550) 2월.

이기 때문이다.⁶ 이항 문하에서 차지하는 조목의 위상, 금난수가 이항 문하에 입문하기 전에 먼저 조목에게 배웠다는 점, 처남 매제 간으로 맺어진 가족적 유대감 등이 그 바탕에 깔려 있었을 것이다.

금난수는 주로 청량산靑涼山을 중심으로 산사에 머물며 독서했다. 또래의 유생들이 향시에 응시하기 위해 분주하던 때 자신은 경서를 품고 산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학문에 진지했다. 23세 되던 해 가을, 금난수는 조목·구봉령具鳳齡(柏潭)·김팔원金八元(芝山)·권대기權大器(忍齋)와 함께 현사사玄沙寺에 모여 독서계를 조직한 데서 당시 이항 문하의 도학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모임의 운영 방향이 기본적으로 독서에 있었음은 다음의 논의에서 대략 알 수 있다.

무릇 우리 벗들이 헤어졌다 모였다 하니 달리 도움이 되는 바가 없다. 혹은 산사에서, 혹은 서원에서 좋은 계절을 골라 각자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모여 통독한다.⁷

논의의 내용이 결의에 차 있고 시부나 잡서가 아닌 경서와 사서를 읽기로 한 데서 이 모임이 학문의 성취에 목표를 두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내용이 조목의 연보에도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이항 문하를 출입하던 제자들 사이에는 학문에 대한 돈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 그들은 학문이 참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었고 학문에 입지를 굳힌 젊은 유생들은 학문의 세계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6 『성재일기』(이하 『일기』로 줄임), 1554년(명종 9)~1556년(명종 11) 참조.

7 『성재문집』(이하 『문집』으로 줄임), 「연보」 1552년(23세).

8 『월천집』(元), 「연보」 1552년(29세). “每以四節或山寺或村社, 遂閒近處聚會, 除閒雜書, 經史中一冊持來, 通讀云云.”

이황은 풍기 군수 직을 끝으로 벼슬살이를 청산하고 후진양성에 뜻을 굳힌 직후라 의욕적으로 제자교육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이 시기에 금난수는 『심경心經』을 읽고 있었는데, 『심경』은 도학의 핵심 영역인 마음공부의 대표적 텍스트로 퇴계학단에서 특히 중시했던 책이다. 퇴계학단에서 『심경』이라고 하면 보통 진덕수陳德秀의 『심경』에 정민정程敏政이 부주한 『심경부주心經附註』를 일컫는데, 금난수가 당시 이황에게 보낸 시를 보면 진덕수의 『심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⁹ 어느 쪽이든 금난수는 『심경』을 통해 도학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것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이황은 1551년에 계상서당을 열고 본격적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당시 계상서당에서 금난수와 함께 공부했던 인물은 금응훈琴應勳(勉進), 이안도李安道(蒙齋), 김전金典(九峯) 등이었다. 금응훈은 금재琴粹의 아들로 누이가 이황의 맏며느리이기도 했다. 금응훈은 후일 도산서원에서 『퇴계집』을 간행할 때 실무를 담당했으며 도산서원 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안도는 이황의 장손으로 금난수가 벼슬자리에 있을 때도 수시로 내왕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이 금난수의 셋째 아들 금개琴楷와 혼인함으로써 사돈간이 되었다. 김전은 예안 사람이지만 금난수보다 연하이고 일찍 죽어 교유가 지속되지 못했다.

이황은 금난수의 의지를 확인하고 “사내로 태어나 비할 바 없이 귀한 몸인데, 이 일(도학)을 어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 사람이 못나서 이론 것이 없다면 응당 게을러서이니, 지금부터 노력하여 시간을 다투게나.”¹⁰

9 『문집』, 「연보」 1552년(24세). “西山一部倡斯文, 敬義相須養本源, 四子遺書共終始, 何須別路更求門.”

10 『문집』, 「연보」 1557년(28세). “生爲男子不費身, 此事何須讓別人, 齷齪無成應坐懦, 從今努力競時辰.”

라는 말로 격려했다. 벼슬에서 물러난 50대의 이황의 지도하에 20대의 금난수는 본격적인 학문 탐구에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금난수와 이황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도학이라는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금난수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이황에게 올린 시와 편지는 학문적 의지로 충만해 있어 여타의 시문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자연히 이황으로부터도 많은 편지를 받았으며 금난수는 이를 소중하게 간직했다.¹¹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황을 중심으로 문하의 동문들 간에는 학문적 동질감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동질감 위에서 퇴계학단이라고 하는 확고한 학문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금난수의 공부 양상을 한 마디로 도학으로 단정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그것은 금난수의 일기에 보이는 또 다른 측면 때문이다. 일기에는 거접_{居接} 모임에 열심인 금난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거접은 일반적으로 산사나 향교, 서원 등에서 유생들이 시부_{詩賦}를 겨루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모임의 성격이 강하고 주로 과거를 앞두고 열리는 모임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¹² 일기에는 금난수가 20대에서 30대 초에 주로 거접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¹³ 즉 금난수도 당시 유생들의 일반적인 관행대로 과거시험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11 『일기』 1582년(선조 15) 11월 14일 기록에는 이황과 금난수의 학문적 관계를 상징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즉 금난수가 퇴계로부터 받은 시문을 묶어 5책짜리 첩장을 만들었다는 기록인데, 이것은 조목이 이황으로부터 받은 편지 113통을 묶은 『師門手簡』보다 먼저 금난수의 『사문수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조목이 『사문수간』을 엮은 시기가 1588년(선조 21)이었음을 감안하면, 조목이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2 김경용, 『용산서원의 거접 활동 기록과 그 의미』, 『교육사학연구』 16(교육사학회, 2006); 전경목, 『조선 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 응시 — 권상일의 청대일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한국사학회, 2007).

13 『일기』 1554년(명종 9) 11월 2일.

실제 금난수는 26세 되던 해 영양에서 실시된 소과 향시에 응시하기도 했다.¹⁴ 또 그 전 해에도 향시에 응시했으나 낙방했고 이를 위로하는 이황의 편지가 문집에서 확인되는데, 1554년에 이황이 금난수에게 보낸 이 편지는 과거시험에 대한 조선시대 사족들의 생각을 적실하게 보여준다. 이황은 편지에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사족으로서 구실하기가 어렵고 또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기 어려우니 과거공부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정자와 주자도 과거 응시를 금한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⁵

금난수는 32세 되던 1561년(명종 16) 8월에 생원시에 합격했는데, 이 보다 앞서 2월에는 합천에서 실시된 향시에 합격했다. 그런데 일기의 기록은 서울에서 있었던 회시보다 합천에서 있었던 향시에 관해 자세하다. 왜냐하면 향시에 응시하기 위한 합천으로의 여행은 단순한 과거시험 여행이 아니라 산수 유람과 인적 교유가 혼재된 복합적 여행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합천 향시에 응시하기로 마음을 굳힌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그는 평소 경상우도의 산림인 조식曹植(南冥)의 명성을 듣고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황과 조식이 생존해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양현의 문인들 사이에는 격의가 없었다. 이황의 문인들 중에는 조목처럼 조식을 흠모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구鄭球(寒岡)나 김우옹金宇顛(東岡)처럼 실제로 양문 수학한 이들도 있었다. 금난수가 조식을 만나고자 한 데는 처남인 조목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마침 그 때 인척 가운데 숙향 되는 사람이 조식이 거주하고 있던 삼가三嘉현감으로 있었고 이종형 정복시鄭復始¹⁶가 이웃 고을인 단성丹城 현감으로

14 『일기』 1555년(명종 10) 10월 9일.

15 『퇴계집』 권36, 『答琴聞遠(甲寅)』, “但於此有一焉, 國俗, 草澤無名之人, 往往有不能庇身之處. 況親心所望於子弟者, 專在立揚, 末世科名, 安可廢哉. 是故, 程朱門下, 鮮不應舉, 而師席亦不禁斷, 此意亦不可不熟慮而兼有攻業也.”

있었으며, 가는 길에 있는 성주星州에는 동문인 황준량黃俊良(錦溪)이 목사로 있었다. 금난수는 이 기회를 남쪽 여행의 적기로 판단했다. 그러나 금난수가 남행을 결심한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으니 바로 합천 향시에 응시하는 일이었다. 그는 31세 되던 해 11월 12일에 길을 나서 이듬해 5월 3일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근 6개월 동안 성주를 거쳐 합천·삼가 등 남쪽 지방을 여행했는데, 이 기간 동안 향시에 합격했고 조식을 만났으며 그 외 여러 강우지역 인사들과 교유했다.

금난수는 여행의 거의 막바지에 조식과 만날 수 있었다. 떠날 때부터 기대했던 만남이어서 그런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4월 18일, 이원李源(清香堂)·권문현權文顯(竹亭)·정구鄭構(永慕庵) 등 지역 인사들과 함께 삼가 뇌룡정雷龍亭을 방문하여 조식을 만난 것이다. 그가 남긴 조식에 대한 인상은 “언어가 준절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초월하는 기개는 있으나 원만한 뜻이 모자란다.”¹⁷ 등으로 요약된다. 이 자리에서 조식은 이황과 기대승 간의 성리논변에 대해 비판했는데, “전현의 말을 실천할 방도를 찾지 않고 성리의 이론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며 그 뜻을 이황에게 고할 것을 부탁했다. 조식과의 만남은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났다.

당초 남행을 시작할 때는 가야산과 지리산을 유람하고 조식을 만나보리라 하는 일종의 남쪽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야산 유람은 날씨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지리산 유람은 서모의 급보 때문에 포기했으며, 조식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당초의

16 鄭復始(1522~1595), 자는 以健, 호는 桂潭·桂軒, 본관은 東萊. 아버지는 천문교관 鄭華이고 어머니는 英陽南氏로 아우 鄭復元과 함께 송도에서 徐敬德에게 수업하였다.

17 『일기』 1561(명종 16) 4월 18일. “言語峻絕, 傍若無人(…) 有超越之氣而少渾然之意.”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남행에서 최대의 성과는 향시에 합격한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2월에 합천에서 향시가 있었는데 금난수는 진사시와 생원시에 모두 2등 12인으로 합격한 것이다.

그러나 조식의 문인들을 비롯해서 우도의 여러 선비들과 교유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소득이었다. 가는 길에 성주에 들러 동문 황준량(黃俊良, 錦溪)과 오건(吳健, 德溪)을 만났고, 합천에서는 조식과 동갑으로 명성이 자자하던 이원(李源, 清香堂)을 만났고, 삼가에서는 권문현(權文顯·권문저(權文著·권문임(權文任·권문언(權文彦) 형제, 정구(鄭構) 등 조식의 문인들과 어울렸다.

이종형 정복시, 숙부 류씨 등으로부터의 도움도 컸다. 금난수가 남쪽에 머무는 동안 이들은 시관(試官)이나 수협관(搜挾官) 등으로 향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며 단성과 삼가의 관아에서 머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동문인 정탁이 교수로 있는 진주향교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점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관행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이점임은 분명하고 그 뿌리는 혈연과 학연이었다. 그들에게 교유가 단순한 인간적 정감의 문제를 넘어서는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향시는 성공적이었고 이 해 가을 생원시 회시에 3등으로 합격했다.¹⁸ 이후로도 꾸준히 과거에 도전했지만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금난수의 과거 응시는 공부의 성격이 당초의 도학에서 과거공부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조선시대 사족들의 일반적인 공부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궁극적으로 치국·평천하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유학자에게 출사는 학문적으로 전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했다. 이황이 제자를 지도하는 기본 입장도

18 『문집』, 『연보』 1560년(31세); 1561년(32세).

도학과 거업의 병행이었다. 이점은 금난수가 23세 때 이황이 보낸 편지에 명확히 드러나 있다.¹⁹ 이황은 가족이 있는 사람이 도학에만 뜻을 두고 과거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그 또한 옳지 않다고 했고, 반대로 가난 때문에 과거공부에 몰두하여 도학을 소홀히 한다고 느끼면 도학을 강조했다. 즉 가난한 선비가 과거시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가난을 이유로 도학을 폐하는 것은 곧 자포자기라는 것이다.²⁰

이렇게 볼 때, 수학기의 금난수는 도학과 거업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교유 관계에 있어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황 문하의 동문들이었고, 도학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적 공감대와 동문 의식이 이들 간에 각별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대는 이황에 대한 조아의 평판과 더불어 금난수의 거업과 출사 전반에 걸쳐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3. 출사 시기의 교유

금난수는 32세에 생원시에 합격한 이후, 50세 되던 1579년에 유일遺逸로 천거를 받아 제릉 참봉에 임명되었고, 52세 때 1581년에 집경전 참봉에 임명되었고, 54세 때 1583년에 경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며, 58세 때 1587년에 장흥고 직장으로 승진했다. 60세 때 1589년에 장예원 사평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 4월에 해직되었다. 이후 성주 판관, 익위사 익위에 제수되

19 『退溪續集』卷6, 「與琴聞遠(壬子)」. “然賢居今世, 且有老親, 何可不務學業. 二者并進, 要著百之千之之功, 可也.”

20 『退溪集』卷23, 「與趙士敬」. “但公窘窶太甚, 憂貧之累, 決科之業, 誠難擺脫, 然緣此而欲遂輟學問之工, 此則大誤矣. 猶曰非敢爲自暴自棄, 獨不見伊川之言曰, 懈意一生, 便是自暴自棄耶. 僕廢倦尤極, 而爲此言者, 欲議人病以得己病之藥耳. 如見聞遠, 亦告如右.”

었으나 부임하지 않다가 70세 되던 1598년에 봉화 현감으로 부임하여 이듬해 8월까지 근무했다. 대략 11년 남짓 기간 동안 성실히 벼슬살이를 했으므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교유’라는 말을 이상적으로 해석하면 출사 시기의 교유는 단지 출세를 위한 방편적 인간관계의 의미에 그치지만, 16세기 조선 사회에서 출사 시기의 교유는 지연·학연·혈연을 크게 확장시키면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견해²¹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이 그동안 과소평가되어 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금난수의 첫 번째 임소任所인 제릉은 태조 이성계의 정비인 신의왕후의 능으로 황해도 개풍군(現 개성)에 소재하고 있다. 능참봉의 주된 임무는 능을 수호하고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당시 참봉 2인이 1조가 되어 한 달에 보름씩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²² 자연히 제릉 참봉 재직 시에 금난수가 가장 많이 만났던 상대는 주로 현관과 집사의 임무를 띠고 방문하는 인근 고을 수령들이었다. 일기에는 수많은 인사들의 면면이 등장하는데, 이들과의 만남은 직무상의 만남일 수밖에 없었으나 이 경우도 넓은 의미의 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들과의 사귀는 직무상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지만 벼슬살이에 일정한 도움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단순한 직무상의 관계를 넘어서 계회를 조직할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가 장흥고 봉사로 있을 때 직속 상사들과 함께 계회를 열고 계회도와 시를 남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²³

21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73(조선시대사학회, 2015), 110쪽.

22 김효경, 『조선후기 능참봉에 관한 연구 — 『이재난고』 장릉참봉 자료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20(한국고문서학회, 2002) 참조.

23 『문집』 권3, 『연보』 57세조 장흥고 영 趙舜賓, 주부 金禩, 직장 白守琮이 참여했다. 金禩가

출사 기간의 일기는 공적 기록으로서의 특징이 뚜렷한데, 그는 제사에 참여한 전사관·향사·집사의 인적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장흥고 봉사로 근무할 때 일기에는 입직 사실이나 가령 번고反庫라고 해서 창고를 점검할 때 감독자가 누구였는지까지 일기에 남겼다. 이렇게 한 것은, 후일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공적 기록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능참봉의 근무 방식은 보름씩 교대 근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근무가 없는 출번出番 때 금난수는 주로 도성(서울)에 들어와 사람을 만났다는 점이다. 같은 능참봉이라 해도 집이 가까운 지방에 있는 사람은 본가에 가서 집안일을 돌보기도 했는데²⁴, 금난수의 경우는 주로 도성에서 시간을 보내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그에게는 오히려 중요한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류의 상대는 대개 관직에 있거나 관직을 바라보고 도성을 출입하던 인사들이었고 그 중심에는 지연·혈연으로 맺어진 지인들과 특히 이항 문하의 동문들이 있었다. 그들은 요긴한 정보를 주고받았고 필요한 편의와 도움을 제공했다. 일기를 보면 각종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을 만났고 정보는 혈맥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들이 출사시기에 이루어진 교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앙의 여러 요인들을 만났다는 점도 출사기 교류의 특징인데, 대표적인 예가 이이李珥(栗谷) 같은 사람이다. 그는 여러 차례 경릉참봉으로 있던

계회도를 그리고 李陽元이 시를 지었다.

24 김경숙, 「18세기 능참봉 김두벽의 관직생활과 왕릉수호」, 『규장각』 28(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121쪽.

금난수의 처소를 방문했으며 금난수도 이를 인연으로 찾아가서 업무를 의논하기도 했다. 이이에 대한 금난수의 평가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는 조목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는 것이 정성스러우면서 간곡하고 시사에 대한 말도 모두 평탄하고 담박하여”²⁵ 나무랄 데 없는 인물임에도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임금께 아뢰는 글이 지나치게 준엄하고 격렬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대사간 송응개宋應漑가 말[馬]을 바치면 북변 방어의 임무를 면제해 준 전 병조판서 이이의 조치를 두고 국병國柄을 멋대로 휘두른 것이라며 상소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²⁶ 금난수는 오히려 동인인 송응개의 상소를 지나치다고 한 것이다. 인간적인 교유는 당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판서를 지낸 이이가 과연 어떤 동기에서 말단 관료에 불과한 금난수를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난수는 “도산과의 인연 때문”²⁷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이가 20대 초반에 도산으로 이황을 방문하여 3일 동안 머무르며 가르침을 받았던 사실을 말한다. 이이가 이황과의 짧은 만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학문적 교유의 결과가 현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출사시기에 만났던 인물 가운데 눈에 띄는 또 한 사람은 허봉許篈(荷谷)이다. 허봉은 본관이 양천陽川으로 허엽許曄의 아들이자 허난설현許蘭雪軒의 오빠이며 허균許筠의 형이다. 금난수는 넷째 아들 각恪을 허봉에게 보내 배우게 했는데, 각은 18세에 요절했지만 매우 총명하여 16세 때 지은 『일동산수기日洞山水記』는 지금까지도 명문장으로 알려져 있다. 금난수는 벼슬살

25 『문집』 권2, 서『與趙士敬』. “辭語款曲, 時論亦皆平淡.”

26 『왕조실록』, 선조16년 7월 16일조.

27 『문집』 권2, 서『與趙士敬』. “李叔獻以陶山契分, 屢次委訪於直廬.”

이를 하면서 아직 수학기에 있던 막내아들 각을 허봉에게 배우게 했던 것이다. 허봉의 아버지 허엽은 서경덕(徐敬德)(花潭)의 문인으로 서울에 살았는데 이황과도 교유가 있었다. 금난수는 서경덕의 학문에 대해서 “한 마디도 병통 없는 말이 없고 한 곳도 통하는 곳이 없다.”²⁸는 식으로 격렬하게 비판했지만, 자신의 아들은 허봉에게 배우게 한 것이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허봉이 일찍이 이황에게 배웠다는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다.²⁹ 허봉은 일반적으로 유희춘(柳希春)의 문인으로 분류되지만, 형 허성(許箴)과 함께 이황의 문하에 출입했으며 이황의 만시와 이황의 손자인 안도의 제문을 쓰기도 했다.³⁰ 그들의 인간관계를 모두 학문적 교류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들의 관계에는 도학적 공감대가 깔려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금난수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중앙 정계의 동향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재지 사족으로서 향리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가령 1584년(선조 17)에 김부륜(金富倫)(雪月堂)의 서울 집에서 향리인 예안의 좌수를 임명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³¹ 16세기 당시 좌수는 향촌의 지배질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좌수를 결정하는 일은 지역사회로서는 중대사에 속했다. 금난수는 이외에도 유희소의 임원을 선임하기 위한 자리에도 참석하고 있음을 일기는 보여준다.³² 이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관말직이나마 참봉의 벼슬에 있었기 때문이다.

28 『문집』 권2, 잡저 「讀花潭集辨」. “無一語無病, 無一處可通.”

29 『문집』 권4, 「日洞山水記」. “又嘗親承營效於退陶, 則遂退陶未遂之志者, 捨荷谷伊誰也.”

30 『陶山及門諸賢錄』 卷4, 「許箴」, 「李安道」.

31 『일기』 1584년(선조 17) 8월 29일.

32 『일기』 1589년(선조 22) 8월 5일.

그는 이항의 문집 간행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다. 『퇴계집』 발간을 위한 논의는 이항이 사망한 직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준비와 발간 원칙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모임은 류성룡柳成龍(西厓)의 주재로 서울에서 이루어졌는데, 금난수 외에 김부륜·이교李喬(遠巖)·이덕홍李德弘(良齋)·박려朴麗(勿齋)·김해金垓(近始齋)·김취려金就礪(潛齋) 등이 참여했다.³³ 『퇴계집』은 1600년에 초간본이 발간되는데, 그 준비를 위한 논의가 서울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금난수가 제릉 참봉을 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또 다른 형태의 중요한 교유의 기회는 각종 전별연, 축하연이었다. 전별연은 일기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예안이나 안동으로 벼슬을 받아 떠나는 자리에는 판서에서부터 일반 유생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출향 인사들이 거의 참석하여 친분을 쌓았다. 금난수는 전별연에 참석한 날은 참석자들의 명단을 빠짐없이 일기에 기록했다.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면, 예조판서 정탁鄭琢(藥圃)·학관 김진金鎭·민응기閔應祺(景退齋)·이교·박려·이덕홍·이정회李庭繪(松澗)·이영도李詠道(東巖)·안몽열安夢說·정사성鄭士誠(芝軒) 등으로 이항의 문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³⁴ 이 사례는 출사 시기의 교유에도 퇴계학단의 동문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문과 출사가 현실에 있어서는 결코 무관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재소京在所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전별품을 따로 준비해 둘 만큼 그들에게는 중요한 행사였고, 어떤 날은 하루에 전별연 두 군데를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³⁵

33 『일기』 1584년(선조 17) 8월 17일.

34 『일기』 1588년(선조 21) 1월 26일, 6월 23일.

35 『일기』 1588년(선조 21) 2월 6일.

출사 기간에 빈번하게 이루어진 또 다른 교유의 기회는 경축연이었다. 출사를 위해서는 우선 그 진입 관문이 되는 과거에 급제해야 했으므로, 급제 관련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기록되었다. 지인들 가운데 새로 급제자가 나오면 어김없이 이를 축하하는 경축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선생先生’이라고 하는 독특한 역할이 등장했다. 가령 1591년(선조 24) 10월 4일에 김강金綱 등의 사마시 합격을 축하하는 경축연에는 좌랑·봉화 현감·예안 현감이 선생이 되었고,³⁶ 동년 11월 12일에 김경건金景建의 사마시 합격을 축하하는 경축연과 11월 24일 권태일權泰一의 사마시 합격을 축하하는 경축연에는 모두 예안 현감 신지제申之槩(梧峰)가 선생의 역할을 맡았다.³⁷ 또한 1601년(선조 34) 7월 30일 금난수의 두 아들의 문과 급제 축하연에는 제독 이봉춘李逢春, 예안 현감 김취의金就義, 전임 장기 군수 금응하琴應夏가 선생을 맡았다.³⁸ 주로 중앙의 벼슬아치나 고을 수령이 선생의 역할을 맡았는데, 선생에게는 신참 급제자가 앞으로 헤쳐 나갈 출사 과정 전반에 걸쳐 후견인의 역할을 부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여기서 선생은 학문을 지도하는 선생이 아니라 과거와 벼슬살이를 지도하는 선생이었던 것이다. 경축연에는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 측 인사들과 신참 합격자와 선생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지인이라고 해도 단순한 일가친척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들이 초청되었다. 이들은 경축연을 통해 동질감을 확인하고 결속을 다졌던 것으로 보인다.

출사 기간의 일기에서 관찰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체들의 교육에 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금난수는 벼슬살이가 길어지면서

36 『일기』 1591년(선조 24) 10월 4일.

37 『일기』 1591년(선조 24) 11월 12일·24일.

38 『일기』 1601년(선조 34) 7월 30일.

가족을 임지에 데리고 가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자식들의 공부 문제였다. 그는 네 아들이 무슨 책을 읽는지, 학교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과거 응시 사실과 그 결과를 모두 빠짐없이 기록했다. 넷째 아들 각을 허봉에게 배우게 한 것도, 결과적으로 자식의 교육 환경을 온전히 수도권으로 옮겨 효과적인 과거공부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 되었다. 금난수가 허봉을 만났다는 기사가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주로 자식의 교육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식 교육에 무척 정성을 쏟았고 이를 위해 벼슬살이는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금난수는 32세에 소과에 급제한 이후 나이가 들면서 참봉으로 도성 근처에 근무하기 전에는 과거에 대한 꿈을 거의 접고 살았다. 그러나 도성 근처에 근무하면서 과거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좀 더 당당한 벼슬자리를 위해서는 문과에 급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 그런 사례도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도성 주변의 능참봉으로 재직했던 인물에게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³⁹ 일기에는 금난수가 54세가 되던 1583년(선조 16) 4월에 알성별시(講聖別試)를 보았고, 같은 해 7월에는 부자가 함께 시험장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정시(廷試)를 보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 응시 횟수는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자신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대신 두 아들 업(堧)과 개(愷)가 문과에 급제하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⁴⁰

교육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교유 형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동년(同年)이다. 동년은 과거에 함께 합격한 동방급제자를 이르는 말로서 과거 급제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조선시대에는 동년을 중요한 관계로 여겼

39 김경숙, 앞의 논문, 122쪽.

40 『일기』 1601년(선조 34) 5월 16일.

다. 금난수 역시 동년을 중시하여 객지에서 만나면 반가워했고 지나는 길에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만났다.⁴¹ 심지어 자식의 동년을 매개로 해서 교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번은 도성에 들렀다가 부사 이민각李民覺을 방문했는데 그의 아들이 금난수의 아들과 사마시 동년이기 때문이었다.⁴² 이처럼 동년이야말로 출사 시기 교유 관계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금난수는 조정의 동향에 대해서도 늘 귀를 열어두고 있었다. “정사政事가 있었다.”라는 말이 일기에 자주 언급되는데, 조정에 인사가 있었다는 말로서 관직의 향배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다.

금난수는 70세 되던 1598년(선조 31)에 마지막 벼슬인 봉화 현감에 제수되었으나 이듬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파직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결코 짧지 않는 벼슬살이 끝에 그가 최종적으로 성취한 벼슬은 종6품의 봉화 현감 자리였다. 피상적으로 보면, 노력의 결과가 보잘것없어 이것을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객지에서 보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그는 차남과 삼남을 문과에 급제시키고, 장남은 사마시에 합격시킬 정도로 자식농사에 성공했다. 또한 미관말직이지만 꾸준히 벼슬을 유지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관료조직과 연결될 수 있었고 향리에서도 명문 가문으로서의 가격家格을 유지할 수 있었다.

4. 일상생활 속에서의 교유

금난수는 봉제사 접빈객 및 관혼상제 등 사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41 『일기』 1580년(선조 13) 윤4월 24일; 1582년(선조 15) 2월 25일.

42 『일기』 1589년(선조 22) 4월 1일.

하는 일상적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사실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 교유는 앞에서 거론한 두 가지 형태의 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기를 검토해 보면, 전통사회에서 사족들의 접빈객은 단순히 찾아오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해야 한다는 도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오늘날 전화 통화만큼이나 남의 집으로 찾아가서 사람을 만났던 것도 이 때문이다.

금난수의 경우,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고산정孤山亭⁴³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유이다. 금난수가 35세 때 독서와 수양을 위해 지은 고산정은 금난수 자신보다 더 잘 알려져 있다고 할 정도로 그의 삶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인근 고을 수령들이 청량산을 유람하고 나면 이곳에 유숙하기도 했으며 이황도 고산정을 특별히 애호하여 많은 시를 남겼고 원근의 여러 공경대부들이 시를 남길 정도로 당시에 고산정은 명소였다.

청량산 축융봉 아래 마을은 속칭 '날골'로 불렸는데 이황이 '일동日洞'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으로, 금난수의 요절한 넷째 아들 금각은 명문으로 알려진 『일동산수기』에서 “하늘이 만들고 땅이 감추어 둔” 곳으로 찬탄할 만큼 주변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 금난수는 이곳에 정자를 짓고 일동정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후에 고산정으로 바뀌어 부르게 되었다. 그는 고산정을 지은 후 가지 앓은 달이 없고 가기만 하면 며칠을 있으면서 돌아오는 것을 잊었다⁴⁴고 할 정도로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가 관료보다는 은사隱士의 이미지로 각인된 데는 고산정의 영향이 컸다. 본래

43 현재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고산 맞은편 소재하며 일기에는 孤山精舍 혹은 日洞精舍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44 『문집』 권4, 부록 『日洞山水記』.

금난수에게는 20대 중반에 이미 부포 본가 인근에 지은 정자가 있었고, 이황이 성성재(惺惺齋)라는 편액을 써 줌으로써 그의 호가 되었다. 그러나 고산정이 주변의 빼어난 풍광과 더불어 훨씬 많이 알려짐으로써 지역의 명소가 된 후로는 고산정이 금난수를 대표하는 상징물처럼 되었다.

고산정이 교유의 장소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대략 40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금난수는 이제 나이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예안지역의 원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인사들이 그를 만나러 집으로 방문했고 자식을 데리고 와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기에는 과거 관련 기사가 줄어들고 관직 관련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기에는 고산정과 관련된 기록이 곳곳에 등장하지만 고산정에서 어떠한 교유가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행히 문집에는 사우들이 고산정을 읊은 시를 모아 ‘고산정제영(孤山亭題詠)’이란 제목 하에 정리해 두었으므로 이를 분석해 보면 고산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유의 대략적 윤곽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⁴⁵

〈‘고산정제영’에 수록된 시와 작자〉

제 목	작자	비 고
題孤山絕壁	李 滉	禮安, 琴蘭秀의 스승
再遊孤山		
書贈開遠		
仙鶴臺		
次聞遠孤山亭韻		
寄問孤山琴聞遠		
琴聞遠自孤山寄詩一絕 言小舟……		
獨遊孤山至月明潭 因並水循山……		

45 『문집』 권4, 부록 『孤山亭題詠』.

제 목	작자	비 고
次韻題孤山亭	李文樑	禮安, 李賢輔의 次子, 평릉 찰방
寄孤山	趙 穆	禮安, 李滉 문인, 사마시, 봉화 현감
孤山亭贈琴聞遠	權 東輔	安東, 李滉 문인, 사마시, 초계 군수
寄聞遠孤山書齋	琴 輔	禮安, 李滉 문인, 사마시
奉題孤山	吳守盈	禮安, 李滉 문인, 李堧의 외손자, 사마시
孤山訪琴聞遠別業	金克一	安東, 李滉 문인, 金誠一의 兄, 문과, 사헌부장령
次孤山亭韻	金富儀	禮安, 李滉 문인, 金富弼의 弟, 사마시
奉次孤山亭韻 呈琴司評	金就礪	安山, 李滉 문인, 사복시정
答琴聞遠書 兼寄一絕	具鳳齡	安東, 李滉 문인, 문과, 형조참판
寄題琴聞遠孤山亭	鄭 琢	醴泉, 李滉 문인, 문과, 좌의정
孤山敬次退溪先生韻	琴應夾	禮安, 李滉 문인, 琴應堧의 兄, 사마시, 하양현감
次呈孤山亭韻	金富倫	禮安, 李滉 문인, 사마시, 동북현감
用東坡勝日訪孤山韻 贈琴聞遠	權好文	安東, 李滉 문인, 사마시
琴聞遠孤山別業留題一律	鄭惟一	安東, 李滉 문인, 문과, 대사간
琴聞遠孤山亭 次退陶先生韻	裴三益	安東, 李滉 문인, 문과, 대사간
敬次老先生韻 贈主人兄聞遠	權文海	醴泉, 李滉 문인, 문과, 대제학
敬次孤山亭韻 贈琴聞遠道契	金命元	서울, 李滉 문인, 문과, 좌의정
拈和舍弟月汀韻 奉寄琴聞遠雅契	尹斗壽	서울, 李滉 문인, 문과, 영의정
宿琴聞遠孤山亭 次壁上韻	尹根壽	서울, 李滉 문인, 尹斗壽의 弟, 문과, 예조판서
訪琴聞遠孤山別業	金誠一	安東, 李滉 문인, 문과, 경상우도 관찰사
報月川書 伴送一詩牋 寄琴聞遠孤山	鄭崑壽	서울, 李滉 문인, 문과, 예조판서
奉呈琴聞遠道契	李陽元	서울, 李仲虎 및 이항 문인, 문과, 우의정
敬次孤山亭韻	琴應堧	禮安, 李滉 문인, 琴應夾의 弟, 사마시, 의흥현감
奉次琴丈孤山亭韻	柳成龍	安東, 李滉 문인, 문과, 영의정
琴丈孤山亭 敬次老先生韻	金 玠	榮州, 李滉 문인, 문과, 형조참판
奉次孤山亭韻 寄呈琴司評	禹性傳	서울, 李滉 문인, 문과, 대사성
敬次老先生韻 奉呈琴司評	宋言慎	廣州, 柳希春·盧守慎·李滉 문인, 문과, 이조판서
次孤山亭韻 贈別琴聞遠道契	李 啓	龍仁, 李廷龜의 父, 삼등 현령
次孤山亭韻 贈琴聞遠年兄	洪聖民	서울, 李滉 문인, 문과, 대제학

제 목	작 자	비 고
次孤山亭韻 寄僚兄琴聞遠	俞 泓	서울, 문과, 한성판윤·이조판서·우의정
敬次退溪先生韻 題琴丈孤山亭	鄭 述	星州, 吳健·曹植·李滉 문인, 문과, 대사헌
奉次孤山亭韻 寄呈琴司評	沈喜壽	서울, 盧守愼·李滉 문인, 문과, 좌의정
奉寄孤山亭琴司評案下	柳 根	서울, 李滉 문인, 문과, 좌찬성
敬次孤山亭韻 奉別琴丈南還	李恒福	서울, 李珣 문인, 문과, 영의정
琴丈孤山亭 次壁上韻	洪履祥	高陽, 閔純 문인, 문과, 대사성
琴丈孤山亭 次壁上韻	韓浚謙	漆谷, 문과, 지중추부사
奉次琴司評孤山亭韻	鄭 碯	楊州, 鄭順朋의 子, 사마시, 사평
敬次孤山韻 錄呈惺惺齋	金聃壽	星州, 曹植 문인, 사마시
奉呈孤山琴丈案下	申之梯	義城, 金誠一·金彥璣 문인, 문과, 창원부사
次孤山亭韻 奉贐琴丈南歸	吳億齡	九里, 吳百齡의 兄, 문과, 대사성
留宿琴公孤山精舍	楊士奇	서울, 楊士彥의 弟, 문과, 부평수령

이렇게 정리해 볼 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드러난다. 우선 스승 이황과 고산정을 매개로 두터운 교감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술적 업적이나 위상만 가지고 본다면 금난수가 이황 학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을 떠나 선경에서 유유자적하고 자 하는 공감대가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음을 고산정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시는 도학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학문 외적 영역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도학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위 <표>에 나타난 이황의 시들은 대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64세 때 지었다고 하는 다섯 번째 시 가운데 “일동과 월명담의 아름다운 이름 나 또한 사랑하니, 그대를 다시 찾을 때 넉넉한 경치 즐기리.”⁴⁶ 등에서 두 사람 간에 형성된 미학적 교감이 확고함을 읽을 수 있다.

46 『문집』 권4, 부록 『次聞遠孤山亭韻』, “日月佳名吾亦愛, 尋君時復玩餘輝.”

다음으로 이황의 문인들 가운데 서울 및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과 금난수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김명원(金命元)·윤두수(尹斗壽)·윤근수(尹根壽)·정곤수(鄭崑壽)·이양원(李陽元)·우성전(禹性傳)·홍성민(洪聖民)·심희수(沈喜壽)·류근(柳根)이 고산정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김명원·윤근수·정곤수·홍성민은 금난수가 벼슬 살이를 할 때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었음이 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활동 무대가 수도권이며 일정한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점은 고산정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지역적 내지 문학적 범주를 넘어서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김명원(金命元)(1534~1602)은 서울 출신으로 젊은 시절 이황의 문하에 들어가 농운정사에서 『주역』을 읽었는데⁴⁷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의정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금난수는 장흥고 봉사로 재직할 때 당시 형조판서로 있던 김명원을 찾아가 만났으며 정초가 되면 김명원이 금난수를 찾아오기도 했다.⁴⁸ 금난수는 제관에 차임되어 경기도 지역으로 갈 때면 관찰사로 있던 김명원을 일부러 찾아가기도 했다. 또 금난수가 늦은 나이에 봉화 현감에 제수되어 사은숙배하러 상경했을 때 김명원은 그를 따로 불러 만났다.

윤근수(尹根壽)(1537~1616)는 윤두수의 아우로 역시 서울 사람이다. 이황에게 수업했는데 『심경』을 가지고 질문했으며⁴⁹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윤근수는 금난수가 벼슬에 나아가기 전부터 일기에 등장한다. 금난수가 부친상을 당했던 46세 때 윤근수는

47 『도산급문제현록』 권3, 金命元.

48 『일기』 1588년(선조 21) 1월 3일.

49 『도산급문제현록』 권2, 尹根壽.

이미 경상도 관찰사가 되어 상가에 넉넉하게 부의하고 인근 고을에도 관문(關文)을 보내어 상례를 지원하도록 했다.⁵⁰ 금난수가 제릉 참봉이 되었을 때 윤근수는 개성 유수로 부임하여 찾아가 만나기도 했는데, 제릉이 개성 인근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아마 자주 접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금난수가 경릉 참봉, 장흥고 봉사, 장예원 사평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동안 윤근수는 대사성, 한성부 우윤, 공조 참판, 예조 판서 등으로 도성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접촉 기록은 일기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정곤수(鄭崑壽)(1538~1602)는 정구(鄭逵)의 형으로 성주에서 태어났으나 6세 때 서울로 이사 갔고 문과에 급제한 이후 중앙의 요직을 거치는 동안 주로 서울을 근거지로 했다. 이황의 문하에서는 『심경』을 읽었으며 기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관해 물었다.⁵¹ 금난수가 제릉 참봉으로 있을 때는 관례상 인근 고을 수령들이 향사(香使) 등 제관을 맡았으므로 당시 파주 목사로 있던 정곤수는 제릉으로 찾아와 만나기도 했다.⁵² 정곤수가 강원도 및 황해도 관찰사로 떠날 때는 금난수가 찾아가 축하하고 전별했다. 이후 장흥고 직장, 장예원 사평을 거쳐 61세 때 해직되어 고향으로 내려올 때까지 도움을 청하거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꾸준히 정곤수를 만났던 것으로 일기는 기록하고 있다.

홍성민(洪聖民)(1536~1594)은 서울 사람으로 어려서는 백형인 홍천민(洪天民)에게 수업했고 관직에 나아가서는 율곡 이이 및 우계 성혼과 가깝게 지냈지만, 이황을 위해 만시를 지었을 정도로 존모했던 인물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50 『일기』 1575년(선조 8) 5월 13일.

51 『도산급문제현록』 권3, 鄭崑壽.

52 『일기』 1581년(선조 14) 7월 7일.

벼슬이 대제학에 이르렀다.⁵³ 금난수는 제릉 참봉으로 있을 때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된 홍성민을 찾아가 만났고 장흥고에 근무할 때는 형조 판서 신분의 홍성민을 찾아가 만났다. 홍성민은 1561년(명종 16) 진사시에 장원으로 입격했는데, 금난수는 그를 지칭할 때 장원 출신이라는 점을 일기에 쓸 정도로 그의 재능을 인정했다.⁵⁴ 금난수가 고향에 돌아온 후 다시 경상도 관찰사가 된 홍성민은 특별히 예안현을 방문했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금난수와 이들과의 교유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눈에 띈다. 나이를 보면 금난수가 오히려 연상이지만 벼슬의 품계는 그들이 크게 높다는 점과 그들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서울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시기는 주로 금난수가 벼슬자리에 있던 시기였다는 점이다. 금난수와 이들 간의 교유가 다른 이들보다 빈번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금난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의 입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미관말직이었던 자신보다 훨씬 더 품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 양상은 이왕 벼슬길에 나아간 사람으로서 관직이 절대적 영향을 끼쳤던 당시로서는 일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동기에서 금난수와 교유하고자 했을까?

그들이 지은 고산정 시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먼저 김명원은 자신과 금난수의 관계에 대해 “도道로 맺어진 벗”⁵⁵으로 표현한 부분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그 도의 정체는 무엇인가? 윤근수의 형 윤두수의 시를 보면, 고산정을 두고 “이곳에 퇴계 심학心學의 비결이

53 『도산금문제현록』 권5, 洪聖民.

54 『일기』 1580년(선조 13) 7월 24일.

55 『문집』 권4, 부록 『敬次孤山亭韻 贈琴聞遠道契』.

있어”⁵⁶라고 읊었다. 그들은 고산정을 단순히 아름다운 정자라고 생각지 않고 퇴계의 도학이 전승된 현장으로 본 것이고, 금난수를 퇴계 도학의 전수자로 여겼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홍성민의 시 가운데, “고산은 또한 빛나는 가르침이 남아있는 곳이니, 참된 비결을 다른 데 전하지 마소.”⁵⁷라는 구절에서 그들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결국 퇴계학에 대한 공감대가 그들과 금난수를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말이다. 선비들의 세계에 있어서 도학적 이상과 현실적 인간관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할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난수도 연하의 고관대작들과 교류하면서 자신도 대과에 급제해야겠다는 생각도 굳혀 갔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난수에게 시를 보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는 이황 학맥이 아닌 인물들과도 폭넓게 교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계李啓·유홍俞泓·이항복李恒福·홍이상洪履祥·한준겸韓浚謙·정각鄭瓘·김담수金聃壽·오억령吳億齡·양사기楊士奇 등이 그들인데, 이이 혹은 조식 학맥에 속하는 인물이나 정치적으로 서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도 있다. 이점은 금난수는 교류에 있어서 이황 학맥에 머무르지 않았고 상당히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산정이 안식과 독서를 위한 장수藏修의 장소로 인식되어 있지만, 원근의 사족들의 만남의 장소로 기능하고 있었고 그들의 교류가 단순히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는 데 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가 유일로 천거를 받아 관직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일상적 교류 행위를 통해서 그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는 사족 사회의 관행과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56 上同, 「拵和舍弟月汀韻 奉寄琴聞遠雅契」. “這裏退陶心訣在.”

57 上同, 「次孤山亭韻 贈琴聞遠年兄」. “孤山又是留輝地, 莫把真詮別處傳.”

도덕적 가치로 판단 할 문제도 아니다. 다행히 금난수는 이러한 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러한 교유를 즐길 줄 아는 품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5. 맺는 말

16세기의 사족 사회는 한 마디로 사람과 사람 간에 교유라는 방식으로 ‘연결’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사회는 엄격한 법제도와 관료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였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연결망을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 확보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어떤 시대에도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조선시대 사족사회에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개인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컸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학문을 함께 하고 시문을 주고받음으로써 도학적 이상을 공유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갔지만, 한편으로 과거시험이나 벼슬살이 등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한 교유의 방편이었다. 그 밖에 봉제사와 접빈객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끊임없이 교유는 이루어졌으며, 어떤 면에서 교유는 그들의 존립 기반이며 삶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역사 속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지지도 않았고 주로 하급 관료로서 평생을 살았던 금난수의 삶은 조선시대 사족들의 일반적인 교유 관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문집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거업을 포기하고 위기지학을 위해 노력하는 도학자였으며, 스승 이황은 그의 학자적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

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정의는 조선시대 사족들의 교유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데, 그 동안의 연구가 문집에 나타난 편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 금난수의 교유 관계에서 있어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역시 퇴계학단의 인맥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퇴계학의 공감대 위에서 대부분의 교유가 이루어졌고 교유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들도 이항 문하의 동문들이었다. 그러나 11년이 넘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벼슬길에서 보냈고 끝내 실패했지만 대과 급제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금난수에게는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유가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퇴계학단의 동문들도 있었지만 전혀 학맥이 다른 인물들도 있었고 심지어 당색이 다른 인물들도 있었으며 품계가 전혀 다른 인물들도 있었다. 그들과의 관계가 반드시 학문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사족으로서 출사와 입신에 대한 자연스러운 욕망과 가문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무도 교유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금난수는 그들과의 교유를 타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알뜰하게 애썼으며 그 결과는 예안 지역에서 그의 가문이 사족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유의 상대가 금난수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여전히 퇴계학의 계승자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점이다. 미관말직의 금난수가 중앙에서 활발한 교유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항의 제자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점은 전통사회에서 학문과 인간관계의 상호 관련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그들은 성리학자로서 도학적 이상을 추구했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인 이상 모든 인간관계가 학문적 동기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들의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현실적 삶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교유의 범주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크게 보면 학파의 영향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선비라고 일컫는 조선시대 도학자 역시 이점에서 예외일 수 없고,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금난수의 『성재일기』이다.

• 2020. 01. 30 : 논문투고

• 2020. 02. 17 ~ 02. 24 : 심사

• 2020. 03. 04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참고문헌

琴蘭秀, 『惺齋日記』

琴蘭秀, 『惺齋集』

趙 穆, 『月川集』

李 滉, 『退溪集』

『陶山及門諸賢錄』

『朝鮮王朝實錄』

김경숙, 「18세기 능참봉 김두벽의 관직생활과 왕릉수호」, 『규장각』 28, 서울
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5.

김경용, 「용산서원의 거점 활동 기록과 그 의미」, 『교육사학연구』 16, 교육사
학회, 2006.

김효경, 「조선후기 능참봉에 관한 연구 — 『이재난고』 장릉참봉 자료를 중심
으로」, 『고문서연구』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박현순, 「성재 금난수의 수학과 교육」, 『역사문화논총』 4, 역사문화연구소,
2008.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조선
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intercourse Patterns of the 16th Century local Confucianists in the Seongjae Diary

Kim, Jong-seok

Senior Researcher,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ocial intercourse patterns of 16th Century local confucianists through Geumnansu (1530~1604)'s Sungjae Diary. Until now, the study on the social relations among the confucianists, centered on literary collections, has focused mainly on the moral philosophy. However,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self-governing life of Geumnansu by self-will rather than the life defined by Lee Hwang and Cho Mok from the standpoint of the social intercourses. In this regard, this paper has studied the companionship as the partners of moral philosophy centered on Toegye school, social intercourses in the period of government office, and social intercourses in daily life centered on Gosanjeong. I used the Sungjae diary as the main text for this analytical work and used his literary collections as supplementary text.

Key words

: Geumnansu, Sungjae Diary, social intercourses,
Entering government offices, Gosanjeong, Toegye School

www.kci.go.kr

